

조건문의 함축의미*

최 중 열
(전주대학교)

Choi, Choong-Lyeol. 1997. *Implicatures of Conditional Sentences. Linguistics*, 5-2, 289-307.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framework to explain the implicatures of conditional sentences. We, first, argue that we can't explain the implicatures of conditional sentences when we use the concept, material implication, for the English 'if-then' construction, and then examine the earlier approaches to implicatures, such as, Akatsuka(1985, 1986), Fillmore(1990), and Sweeter(1996), and show their defects. And we inquire into the cognitive approach which is based on some basic concepts like worlds, cognitive principles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With the help of those concepts, the cognitive approach can solve the intricate problems well in explaining the implicatures of conditional sentences as shown in section 4. This means that our linguistic theory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idea that our language ultimately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our cognitive worlds. (Jeonju University)

1. 서론

우리는 언어를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가하면 의견을 진술하고 또 논증을 펼쳐나간다. 이 때 논증은 많은 경우에 조건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데 조건문이 지닌 의미현상에 대한 논의는 멀리 Aristotle에서부터 시작되어 Stalnaker (1968), Lewis (1973), Grice (1975) 등을 거쳐 Akatsuka (1985, 1986), Fillmore (1990), Sweeter (1996) 등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자연언어의 조건문에 나타나는 'if -, then'도 다른 연결어 즉 연결(conjunction)이나 이점(disjunction)과 별차이 없이 진리함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논리기호인 단순함의 '→'와 동일시하려 했다.

이는 자연언어의 조건문 의미를 조건문을 형성하고 있는 전건과 후건의 진리값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전체의 의미를 해석해내려고 하는 시도이다. 조건문의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경우에만 전체 문장의 의미를 거짓으로 해석하고 그 나머지 경우는 모두 참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실제 자연언

* 이 논문은 1997년도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어에서는 전건과 후건사이에 밀접한 의미의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건과 후건이 지니는 진리값만을 이용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입장은 결코 조건문의 의미를 토박이(native speaker)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조건문이 지니고 있는 함축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적어도 언어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context)과 조건문을 이용하여 언어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화자의 조건문에 대한 태도(attitude)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방법은 Fauconnier(1994)가 제시한 두뇌공간 개념을 이용하여 제시하면 쉽게 조건문의 함축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조건문은 전건과 후건사이에 인과관계, 정의적 관계, 시간의 선후관계, 약속관계, 그리고 가상적 관계를 유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추론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많다.² 다음의 예문들이 이를 입증한다.

- (1) a. If you heat ice, it turns into water.
- b. If it is a triangle, it has three sides.
- c. If today is Wednesday, tomorrow is Thursday.
- d. If you mow the lawn, I will give you five dollars.
- e. If Communist China were in the United Nations, then there would not now be war in Viet Nam.

(1)의 예문들은 전건이 사실세계에 입각한 진술이든 아니면 비사실세계에 근거한 것이든 전건이 참일 경우 후건도 참일 뿐만 아니라 전건에서 기술되고 있는 상황과 후건에서 기술하고 있는 상황 상호간에 의미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함수의 특성을 지닌 예문들이다.

하지만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이 지닌 문장의미 그리고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참임으로 비롯되는 의미관계를 토대로하는 이와같은 함수적 성질에 의해서는 결코 도출할 수 없는 전체문장이 지닌 의미가 있다. 문장이 발화되게 된 상황과 배경지식 그리고 전건에 대한 특히 화자의 태도를 고려해야만 그 의미를 완전하게 해석해 낼 수 있는 경우로 회화적 함축의미(conversational implicature)를 뜻한다. 그런데 이 회화적 함축의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³을 지니고 있다.

2. Dancygier(1993)는 조건문을 예측조건문(predictive conditionals)과 비예측조건문(non-predictive conditionals)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1)에 제시된 예문들은 예측조건문에 속한 것으로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함축의미가 비교적 들어있지 않는 범주를 가리키고 있다.

3. 이를 Grice(1975)가 직접 사용했던 단어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① cancellability

- (2) a. 취소될 수 있다.
 b. 분리할 수 없다.
 c. 계산 가능하다.
 d. 언어표현의 관습적 의미의 일부가 아니다.
 e. 불확정적이다.

조건문의 의미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함축의미를 밝혀내야 비로소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문이 지니고 있는 함축 의미에는 대체로 다음의 것들이 있다.

A. 강조

If $2 + 2 = 4$, then I am the President of this country.

일핏 전건과 후건사이에 아무런 의미적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력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볼 때, “ $2 + 2 = 4$ ”의 명제가 부정할 수 없는 참인 것처럼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임”도 움직일 수 없는 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문장이다.

B. 약속

If you mow the lawn, I'll give you five dollars.

‘잔디를 깎으면 5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지닌 표현이지만 Geis and Zwicky(1971)가 지적한 것처럼 ‘잔디를 깎지 않으면 5달러를 주지 않겠다’는 함축의미도 또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건문은 상황에 따라 충고나 경고의 함축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C. 충고⁴

If you go by train and not by car, then you will get there much earlier.

충고의 함축의미가 비롯되는 것은 행동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만일 행동의 결과가 잘못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

② non-detachability ③ calculability ④ non-conventionality 그리고 ⑤ indeterminacy라 할 수 있다.

4. 충고는 명령문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Go by train and not by car, and you will get there much earlier.

상한다면 경고의 함축의미가 나타난다. 따라서 위 예문은 경고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조건문의 함축의미는 조건문을 형성하고 있는 문장의미에 의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맥락에 따라 좌우된다.

D. 위협

If you tease the dog, you will get thrashed.

'개를 괴롭히면 혼구멍을 내주겠다'는 위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경고와 비슷하지만 화자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를 더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건에서 수행동사가 이용되기도 한다.

If you tease the dog, I promise that you will be thrashed.

E. 경고

If you tease the dog, you will be bitten.

경고가 위협과 다른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고에는 위협과는 달리 화자가 직접 어떤 행동을 수행하겠다는 뜻이 결여되어 있다. 대신 가능하다고 고려된 행위나 이미 수행된 행위 또는 중단된 행위가 청자에게 부적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화자가 이를 일깨워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경고의 의미를 지니는 조건문의 전건은 실세계를 토대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제약을 갖는다. 그리고 경고의 경우 대부분이 약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추론이 성립한다.

If you don't tease the dog, then you won't be bitten.

F. 협박

If you don't sew my coat, then I won't repair your lamp.

어떤 맥락에서는 충고 또는 경고가 될 수 있는 조건문이 다른 맥락에서는 협박이나 협상이 될 수도 있다. 협박은 대화 상대자 중 한 쪽 -특히 화자-에게 더욱 많은 힘이 주어질 때 나타난다.

G. 비난

If you hadn't teased the dog, then you would not have gotten bitten.

어떤 사람이 '철수가 개에 물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뒷예문을 발화했다면 그는 '철수가 나의 충고를 듣지 않고 개를 건드려 물리다니 내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비난의 함축의미를 전달하고자 함이 그 이유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건이 가정법 (subjunctive mood)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함축의미는 대부분 전건이 사실에 근거할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비사실적 상황에 근거해도 무방하다.

2. 예전의 연구

Grice(1975)에 의하여 대화함축의 개념이 자연언어의 의미분석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조건문에 대한 함축의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철학자와 논리학자들에 의하여 거의 전적으로 연구되어 오다가 결국 몇몇의 언어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Akatsuka(1985, 1986), Fillmore(1990), Dancygier(1993), Sweetter(1996)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a. Akatsuka(1985, 1986)

Akatsuka는 조건문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먼저 조건문의 전건이 담고 있는 명제가 화자의 인지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화자가 지닐 수 있는 태도를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한다.

- (3) a. surprise : I didn't know this until this moment!
- b. uncertainty : I don't know if this is true.
- c. negative conviction : I know that this is not the case.

그리고 나아가서 조건문의 전건이 다음의 빗금친 인지영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4)

realis		irrealis	
know (exist ×)	get to know (exist ×)	not know (exist ×)	know not (exist ×)
	↑		↑
	newly-learned information		counter- factual

(4)의 그림에서 빗금친 부분은 화자가 어떤 사실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아무런 마음의 태도에 대한 변화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일 뿐이다. 사실에 관련된 또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이 사실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아니면 사실과는 정반대의 것을 가정할 때이다. 따라서 대부분 조건문의 전건이 담고 있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는 듯하다. 이런 인지적 사실은 다음 문장이 보여주고 있는 문법성의 차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5) a. I am not sure (if / whether) that is true.
 b. I am sure (if / whether) a that is true.⁵

조건문의 전건을 시작하는 if이든 아니면 내포의문문을 가져오는 whether이든간에 이들이 not sure의 보문으로는 쓰이고 있으나 sure의 보문으로는 쓰일 수 없다는 (5)의 예문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if로 시작되는 조건문의 전건에 대하여 화자가 의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명제가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Akatsuka는 조건문은 철저하게 담화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때 담화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담화가 일어나게 된 맥락과 화자의 태도이다. 이런 접근방법으로 조건문의 함축의미를 포함한 모든 의미를 해석하려고 한다.

조건문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조건문이 지닌 대부분의 함축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If you tease the dog, you will be bitten'이 '개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If you don't tease the dog, then you won't be bitten.'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해석해 낼 수 있다. 먼저 you로 지칭되는 사람이 개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장난기가 매우 많아서 개만 보면 집적거려 괴롭히는 경향이 있고, 개 또한 유순하여 사람들이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물지 않고 짖어대기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깔이 있어서 한번만 집적거려도 물고마는 경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는 you로 지칭되

5. 사실에 대한 반대의 경우를 if가 도입할 때는 문장의 서법(mood)이 가정법으로 한정되는데 사실에 대한 반대의 분명한 사실을 가정하고 있음으로 sure의 보문으로 쓰일 수 있다.

I am sure I w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는 사람이나 언급되고 있는 개에 대하여 언어표현에 의하여 진술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추측할 수는 있지만 조금도 예외가 없는 분명한 사실로써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면 좀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예를 들면, 명령문의 형태를 빌어 발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Akatsuka의 조건문 의미해석에 대한 접근방법은 이러한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다음 (6)의 대화 중 나타난 조건문의 함축의미를 해석해낼 수 없다⁶.

(6) Pope : I'm the Pope.

Operator : If you're the Pope, I'm the Empress of China!

(6)의 답화는 실제 교황이 자기 고향을 방문하여 교환원에게 자신이 교황임을 밝혔을 때 일어났던 답화이다. 답화 중 교환원은 자신의 진술을 통하여 결국 '당신이 결코 교황일 수가 없다. 거짓말 하지 마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함축의미를 Akatsuka는 설명할 수 없다. 상황의 개념과 화자의 태도만을 이용하여 이러한 함축의미를 해석해낼 수는 없다.

b. Fillmore(1990)

Fillmore(1990)는 조건문을 형성하고 있는 전건과 후건이 담고 있는 명제가 두 세계사이에 펼쳐있는데 그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인과관계이거나 아니면 시간관계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해석해낼 수 있는 개념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제시한다.

(7) a. relative time : the relative position in time of states of affairs P, and Q, and the time of speaking.

b. epistemic stance : the speaker's assumption about the actuality of P, and in some cases, of Q.

c. interest : whether or not the speaker puts a positive valuation on the alternative situation in which P holds.⁷

6. Akatsuka(1986)도 직접 이 문장을 언급하여 이의 적절한 의미해석을 위해서는 답화상황을 토대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해석이 이루어지는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7. P는 조건문의 전건을 나타내고 Q는 후건을 의미한다.

(7b)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건 P에 대하여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A), 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H), 그리고 반사실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C)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간단한 도형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8)

P
-P

기둥은 전건과 후건 상호간에 있어서 시간상 순서를 가리키고, 각각의 기둥에서 첫째줄은 전건과 후건에 의하여 나타난 명제가 참인 경우를 표시하여 맨 마지막의 셋째줄은 명제가 존재하지 않는 다시말하여 거짓인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中间的 두번째줄은 어떤 세계를 상징한다고 보기 보다는 전건과 후건의 명제에 대하여 그 명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화자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충분하다. 그리고 화자가 이런 세가지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는 빗금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다음 문장 (9)에 대하여 (10)의 도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9) a. Because he left the door open, the dog escaped.
- b. If he left the door open, the dog escaped.
- c. If he had left the door open, the dog would have escaped.

(10)

a.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tr><td>P</td><td>Q</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r><tr><td> </td><td> </td><td> </td></tr><tr><td>-P</td><td> </td><td> </td></tr></table>	P	Q					-P		
P	Q									
-P										
	P/Q/A									

b.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tr><td>P</td><td>Q</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r><tr><td> </td><td> </td><td> </td></tr><tr><td>-P</td><td> </td><td> </td></tr></table>	P	Q					-P		
P	Q									
-P										
	P/Q/H									

c.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tr><td>P</td><td>Q</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P</td><td> </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r></table>	P	Q					-P		
P	Q									
-P										
	P/Q/C									

물론 (9)의 예문이나 (10)의 도형은 모두 전건 P와 후건 Q에 의하여 진술된 명제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어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빗금친 부분이 P와 Q의 뒷자리에 자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전건으로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추론하는 다음 (11a)면 (12a)의 도형이 타당할 것이며,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을 전건으로하여 역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추론하는 (11b)

의 경우이면 그에 대한 도형으로 (12b)가 적절하다. 물론 좀 더 복잡한 시간관계를 지닌 (11c)에 대해서는 (12c)의 도형을 제시하면 충분하다.

- (11) a. If you studied hard, you will pass the test.
- b. If you try it, you will like it.
- c. If he gets better by tomorrow, we gave him the right medicine.

(12)

a.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tr><td>P</td><td></td><td>Q</td></tr><tr><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r><tr><td>-P</td><td></td><td></td></tr></table>	P		Q				-P		
P		Q								
-P										
	P/H/Q									

b.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tr><td></td><td>P</td><td>Q</td></tr><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d></td></tr><tr><td></td><td>-P</td><td></td></tr></table>		P	Q					-P	
	P	Q								
	-P									
	H/P/Q									

c.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tr><td>Q</td><td></td><td>P</td></tr><tr><td></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td></tr><tr><td></td><td></td><td>-P</td></tr></table>	Q		P						-P
Q		P								
		-P								
	Q/H/P									

이러한 Fillmore의 접근방법은 세가지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간단한 도형을 이용하여 조건문이 지나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더욱이 조건문이 지닌 많은 함축의미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건문이 약속의 함축의미를 지닌 경우 후건 Q에 관하여 그 의미를 도형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금만 Fillmore(1990)의 이론을 확장하면 본래의 기본적인 의미와 함축의미를 동시에 간략하고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다음 문장 (13a)는 (13b)를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밝혀진다.

- (13) a. If you mow the lawn, I'll give you five dollars.
- b.

	P	Q
	-P	-Q

H/P/Q
(H/-P/-Q)

하지만 Fillmore의 이와같은 조건문의 의미해석에 대한 접근방법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앞서 제시한 문장 (6)이 지닌 함축의미를 해석할 길이 없다. Fillmore는 전건 P로부터 Q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원의 입장에서는 후건 Q가 결코 사실일 수가 없으므로 결국은 전건 P가 거짓임이 틀림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 낼 길이 없다.

한편 Sweetser(1996)는 Fillmore(1990)의 접근방법을 Fauconnier(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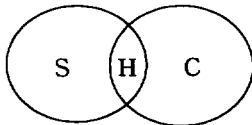
1994)의 이론적인 틀에 의하여 재해석한 것으로 Fillmore가 지닌 약점을 모두 그대로 지니고 있다.

3. 인지론적 해석⁸

3.1 이론의 틀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인지론적 접근방법은 몇가지의 개념을 토대로 한다. 먼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상호간에 공유하고 있는 믿음(shared beliefs)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14)처럼 도형화할 수 있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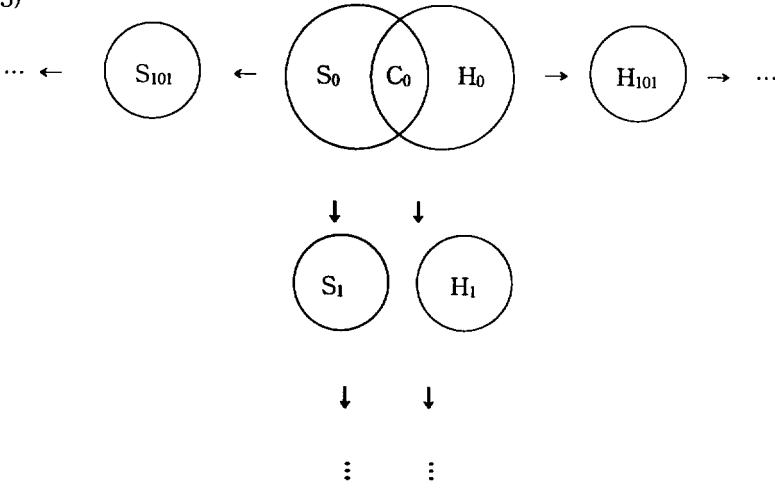
- S: 화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세계
- H: 청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세계
- C: 화자와 청자 모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세계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이해는 많은 약점들을 지닌다. 우선 대화를 통하여 화자와 청자가 모두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됨으로써 인지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상황에 대한 모형이다. 그리고 언어가 지닌 다양한 의미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본고에서 그 의미현상을 해석해내고자 하는 조건문이 지닌 함축 의미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의 모든 세계가 화자와 청자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세계들 뿐이기 때문

8. Akatsuka(1985, 1986)나 Fillmore 1990) 그리고 Sweeter(1996)의 접근방법도 모두 인지론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상황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 하였고 인지론적 개념에 입각한 인식의 원칙과 해석의 원칙등을 이용하고 있기에 예전의 접근방법들과 구별하여 필자의 접근방법을 특히 인지론적 접근방법이라 하고자 한다.

이다. 우리는 이따금 상상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전제하고 이를 토대로 언어활동을 하기도 한다. 언어를 이용하여 추론하는 세계가 상상의 세계일 수도 있고 가정의 세계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거짓의 세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언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모형은 다음처럼 확대되어야만 한다.

(15)



S₀: 화자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화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세계

H₀: 청자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청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세계

C₀: 화자가 청자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화자와 청자 모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세계.

(15)의 모형에서 S₀, H₀, C₀가 나타내고 있는 세계는 화자, 청자 그리고 화자와 청자 두사람 모두에게 관련된 각각의 실세계 (actual world)로 보면 충분하다. 한편 다른 세계로의 확장이 여러 방향에서 무한하게 가능하다. 이 때 세계 확장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세계 확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세계사이의 관계가 이행적(transitive)이라는 사실이다.⁹ S₀의 세계에서 S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H₀의 세계로부터 S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H₀의 세계로부터 S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가

9. 세계들이 지닌 다른 특성을 말한다면 재귀적(reflexive)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재귀적 성질에 대하여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능한 관계를 일컫는다. 하지만 대칭적(symmetric)이어서는 안된다. C_0 를 중심으로 S_0 와 H_0 의 관계만이 유일하게 대칭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조차 세계관계가 필연적으로 대칭적일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인식의 원칙들이 필요하다.

(16) 인식의 원칙

- a. 우리의 인식활동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¹⁰
- b. 대화중 상대방에 의하여 주장되는 명제는 실세계 또는 접근가능한 보조세계에서 참일 때 비로소 참으로 받아들인다.
- c. 일단 어떤 명제가 상황에 덧붙쳐지게 되면 그 이후 그 명제로부터 추론 가능한 모든 명제는 명시적(explicit)전제로서 인정된다.

물론 (16c)에 따라 명제가 상황에 덧붙쳐지면 기존의 상황이 확장되어지는데 기존의 상황에 덧붙쳐져 상황을 확장시켜나가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7) a. 발화된 문장이 함의

- b. 발화된 문장의 절회화함축
- c. 발화된 문장의 척도회화함축
- d. 발화된 문장의 전제

(15)에서 제시한 상황 그리고 (16)에서 제시한 인식이 원칙을 토대로 전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문장의 의미해석을 이끌어낼 때 지켜야 할 다음의 해석의 원칙이 또한 필요하다.

(18) 해석의 원칙

- a. 의미해석은 C_0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b. 한 세계내에서의 모든 모순은 피한다.
- c. 인지활동의 근간이 되는 실세계와 이에 연결된 보조세계 사이에 있어서 배경지식과 잠정적인 전제는 할 수 있는 한 비슷해야 한다.

상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사실들을 기술하고 또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 할지라도 실세계에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니게 된 지식을 토대로 이러한 기술이나 논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언어가 지닌 의미가 결국은 실

10. 불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참과 거짓의 진리값을 부여하는 행위도 지식은 확장하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지니게 된 믿음(beliefs) 또는 가설(assumptions) 등에 비추어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의미해석이 C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너무나도 분명한 명제이다.

그리고 한 세계내에서의 모순도 피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한 세계에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¹¹

한편 (18c)는 (16b)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의 인지활동이 가장 용이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실세계를 형성하는 명제들과 보조세계를 이루는 명제들이 비슷할 경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존경을 받고 있다면 이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것은 단순히 하나의 특정한 실세계에서 내려진 평가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가 정치가라면 먼저 정치권이라는 세계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존경스러워야 하겠고 그의 가정생활이나 다른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세계들에서도 존경스러워야 한다. 나아가 그의 도덕적 신념이나 지향하는 이념 등 직접적인 실세계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이념의 세계에서도 존경스러워야 할 것이며 심지어는 종교적인 문제 등의 영역에서도 존경스러운 점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실세계를 형성하는 명제들과 보조세계를 이루는 명제들이 할 수 있는 한 비슷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인지세계가 나타나게 되고 실제 우리의 인지세계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특수한 형편에 따라 해석의 원칙 (18b)와 (18c) 사이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18b)가 우선권을 갖는다.

3.2 조건문의 함축의미 해석

조건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전건에 의하여 표출된 명제가 문장전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세계를 한정시켜 놓는다는 사실이다. 다음 (19)의 문장을 보자.

(19) *If she were here, they'll be 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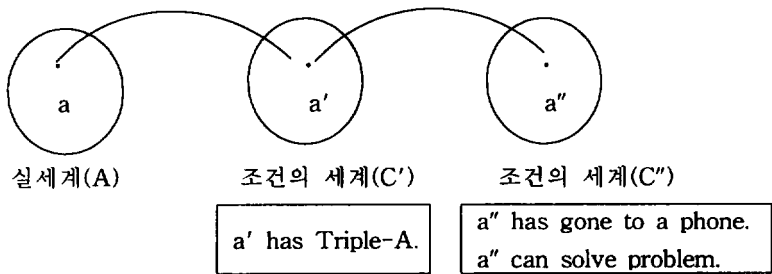
문장 (19)에서 be동사의 형태가 were인 것은 전건이 현재의 시점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화자의 인지적 태도는 반사실적이라

11.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하나의 세계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내린 판단을 하나의 세계-일반적으로 실세계-에서 바라보는 경우이다.

는 점이다. 따라서 문장 (19)는 전건을 통하여 이미 실세계를 떠나 현재의 실세계화는 반대의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가 참인 반사실적인 세계로 세계 이동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후건은 will이라는 동사형태가 쓰이고 있어 우선 세계가 미래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이나 또는 상태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래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will이 밝히고 있는 후건의 명제가 담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이다. 아니면 가정적일 수까지 있다. 하지만 절대로 반사실적일 수는 없다. 결국 화자의 태도가 전건과 후건에서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는데, 한 문장 안에서 화자의 태도는 일치해야지 결코 이처럼 모순을 이루어서는 안된다.

조건문의 의미해석은 실세계에서 출발하지만 조건문의 전건이 지니는 의의특성에 따라 곧바로 그에 합당한 세계로 이동되어야 한다.¹² 따라서 다음 문장 (20a)와 (20b)에 대한 상황은 (20c)처럼 제시할 수 있다.

- (20) a. If you have Triple-A, then if you go to a telephone, you can solve your problem.
- b. If you had Triple-A, then if you went to a telephone, you could solve your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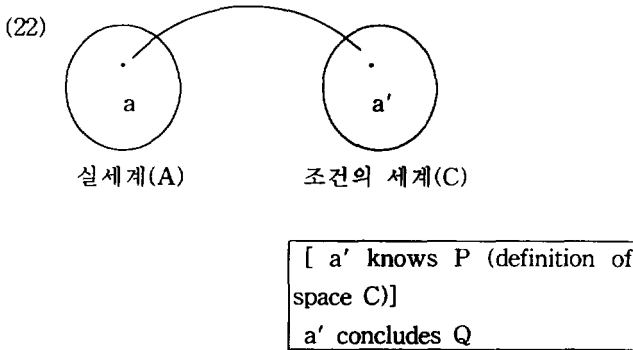
이제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서 조건문이 지닌 함축의미-충고-를 해석해

12. 물론 전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사실에 근거한 것일 경우에는 실세계에서 후건의 의미해석이 가능하여 전체 문장의 실세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의미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음 문장 (21a)는 (21b)의 함축의미를 지닌다.

- (21) a. If you go by train and not by car, then you will get there much earlier.
 b. Go by train.

이의 해석을 위한 상황은 다음 (22)면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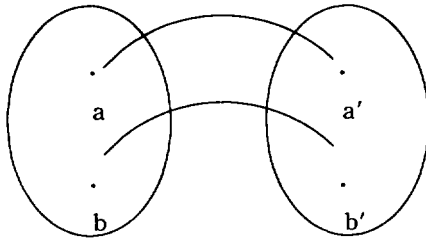
문장 (21a)에서 화자는 전건과 후건의 의미내용이 조건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기차를 타면 빨리 도착하게 된다. 한편 화자는 빨리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인지하고 있다. 물론 전건에 의하여 이동한 조건위 세계에서는 기차를 타는 것과 빨리 도착하는 것이 진리조건적 함수관계를 형성한다.¹³ 기차를 타면 빨리 도착하지만 차를 타면 늦게 도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22)의 상황이 잘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러한 두뇌공간을 토대로 한 상황개념을 이용하여 Akatsuka(1985, 1986)와 Fillmore(1990)가 설명하려 했으나 만족스럽게 의미를 밝히지 못했던 다음 예문 (23)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문장 (23)을 설명하기 위한 상황은 (24)이면 충분하다.

- (23)=(6) Pope : I'm the Pope.
 Operator : If you're the Pope, I'm the Empress of China!

13. 조건위 세계가 지니는 이러한 진리적 함수관계를 이용하면 약속이 지니고 있는 P→Q로부터 ~P→~Q의 명제를 도출할 수 있는 의미관계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24)



[definition of space C:
 a' is the Pope(i.e. P)
 b' wants to argue ~Q

먼저 문장 (23)의 전건에 의하여 인지세계는 실세계로부터 조건의 세계로 옮겨진다. 그런데 이처럼 옮겨 온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전건 P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중립적일 수 있다. P가 참일 수 있는가 하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의 세계에 (23)의 문장 때문에 지니게 된 명제는 다음 (25)이다.

(25) $P \rightarrow Q$

하지만 실세계에서 Q가 거짓임은 분명하다. 화자 자신이 교환원이지 결코 중국의 여왕이 아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건의 세계에서 Q의 진리 값인데 조건의 세계에서도 거짓이라 할 수 있다. 해석의 원칙 (18c)에 의하면 실세계와 보조세계 사이에 배경지식이 비슷할 때 가장 바람직한 의미해석 상황이 형성되는데 가장 비슷한 것은 같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물론 (24)의 조건의 세계에서 (17)에서 제시한 세계확장 순서에 따라 Q의 진리 값이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제가 덧붙여졌다면 Q의 진리 값이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있겠으나 그러한 명제가 덧붙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화에 참여한 교황이 Q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Q는 조건의 세계에서도 거짓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다음의 추론에 의하여 P 또한 거짓이 된다.

$$\begin{array}{l}
 (26) \quad P \rightarrow Q \\
 \quad \quad \sim Q \\
 \hline
 \therefore \sim P
 \end{array}$$

결국 실세계에서는 교황 자신이 자신을 교황이라고 선언하고 있기에 P가 참임이 분명하지만 이를 근거로 하여 도입한 조건의 보조세계에서는 P가 거짓이다. 이는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매우 모순된 주장이지만 자연언어에서는 가능하다. 바로 자연언어의 조건문이 지니고 있는 함축의미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처럼 P에 대하여 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거짓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15)의 상황모형이 보여주고 있듯이 발화된 하나의 문장에 대하여 여러 개의 세계로 이루어진 상황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23)에 대한 의미해석은 토박이가 (23)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의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Fauconnier(1994)의 두뇌공간 개념을 토대로 상황을 (15)에서처럼 확장하고 우리의 인지작용에 근거한 인식의 원칙과 해석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예전의 언어학자들이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었던 문장 (23)이 지니고 있는 함축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황, 인식의 원칙 그리고 해석의 원칙을 토대로 한 인지적 접근방법이 예전의 접근방법들이 지닌 약점들을 보완한 좀 더 타당한 이론적 틀이라 할 수 있겠다.

4. 결론

조건문에 대한 논의가 Aristotle에서 시작되어 Stalnaker(1968), Lewis(1973), Grice(1975)를 거쳐 Akatsuka(1985, 1986), Fillmore(1990), Sweetser(1996)등에 이르는 동안 많은 부분의 의미가 밝혀지고 또 해석이 가능했으나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반드시 수정·보완하여야 할 점들이 많았다.

언어의 기능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의미를 토대로 우리의 인지세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전체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와 주장을 덧붙여나가는 일이다. 이런 언어행위를 수행할 때 가장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문장형태가 본고에서 다룬 조건문인데 조건문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니고 있는 함축의미를 근거로 하여 다른 언어행위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함축의미를 해석

해내기 위하여 필자는 상황을 설정하고 우리의 인식작용이 지니는 속성을 반영하는 인식의 원칙 그리고 해석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조건문이 지니는 함축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필자의 시도는 Akatsuka(1985, 1986), Fillmore(1990), Sweete(1996)등이 갖는 결점들을 보완하는 새롭고도 적절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언어의 의미해석은 언어활동이 우리의 인지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며 이를 해석해낼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봉선. 1991. 영어 조건문의 의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dams, E. W. 1986. "Remarks o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Conditions," in Traugott ed., *On Conditionals*, 167-178.
- Akatsuka, N. 1985. "Conditionals and Epistemic Scale," *Language*, 61, 625-639.
- Akatsuka, N. 1986. "Conditionals are Discourse-bound," in Traugott ed., *On Conditionals*, 333-352.
- Dancygier, B. 1993. "Interpreting Conditionals: Time, Knowledge and Causation," *Journal of Pragmatics* 19, 403-434.
- Fauconnier, G. 1994. *Mental Spaces: Aspects of meaning Construction in Natur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Fillmore, C. J. 1990. "Epistemic Stance and Grammatical Form in English Conditional Sentences," *CLS* 26, 137-162.
- Gazdar, G. 1979. *Pragmatics: Implicature, Presupposition, and Logical Form*. New York: Academic Press.
- Geis, M. and A. Zwicky. 1971. "On Invited Inferences," *L1* 2, 561-566.
- Grice, P. H. 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42-58.
- Haiman, J. 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g* 54, 564-589.
- Harper, W. L., R. Stalnaker and G. Pearce. 1981. *IF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Sweete, E. 1996. "Mental Spaces and the Grammar of Conditional Constructions," in Fauconnier, G. and E. Sweete, eds., *Spaces, Words, and Grammar*, 318-333.
- Sweete, E. and G. Fauconnier. 1996. "Cognitive Links and Domains: Basic Aspects of Mental Space Theory," in Fauconnier, G. and E. Sweete, eds., *Spaces, Words, and Grammar*, 1-28.
- Van der Auwera, J. 1986. "Conditionals and Speech Acts," in Traugott ed., *On Conditionals*, 197-214.

Veltman, F. 1986. "Data Semantics and the Pragmatics of Indicative Conditionals," in Traugott ed., *On Conditionals*, 147-168.

560-759,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Fax: +82-652-220-2050